

바다의 은혜: 후쿠에의 어업 문화

섬들을 둘러싼 울퉁불퉁한 용암은 산호와 해면(海綿), 해조의 숲에 적합한 틈새를 형성하며 그에 따라 물고기와 산호초에 서식하는 종을 끌어들입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나비고기와 같은 열대종이 따뜻한 계절에 쓰시마 해류가 흐르는 섬들을 찾기 때문에 얇은 여울에서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아시아 대륙 가까이에서는 유라시아 대륙 유역보다 깊은 해역과 차가운 바닷물에 의해 잿방어, 정어리, 돌고래 등의 종에게 더 쾌적한 서식 환경이 형성됩니다. 나아가 후쿠에 서쪽에는 난바다와 오키나와 주상해분의 심해가 있어서 태평양 참다랑어와 향유고래 등 더 크고 추위를 선호하는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바다의 산물로 혜택을 입은 후쿠에에서는 연안 어업이 지역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량 공급원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역만의 독자적인 고기잡이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케안

스케안은 용암석으로 만들어진, 썰물 때의 고기잡이를 위한 독으로서 약 2,5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민들이 좁은 만에 낮은 돌담을 쌓습니다. 밀물 때에는 돌담이 완전히 물에 잠기기 때문에 물고기와 다른 식용 생물들이 돌담 위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썰물 때에는 물이 빠지면서 벽 높이보다 아래로 가라앉아 인공적인 바닷물 웅덩이가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물이나 손으로 쉽게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1940년대가 되면 아마도 남획과 해수온 상승에 따라 텃에 걸리는 물고기가 적어져 이 고기잡이법은 사라졌습니다. 최근 자원봉사 단체가 이 전통적인 고기잡이법을 실제로 재현하기 위해 미이라쿠 반도의 스케안 복원에 나섰습니다.

우오미

후쿠에의 또 한 가지 전통적인 고기잡이법은 ‘우오미(魚見)’라는 것으로서 문자 그대로 ‘고기를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업적인 그물 어업의 일종으로서 특히 색이 짙은 대형 감성돔이 잡히기로 유명한 다카사키시 미이라쿠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기잡이법은 만(灣)의 높은 절벽 위에 앉은, 예리한 눈의 감시원과

만 입구에 펼쳐진 그물에 의지했습니다. 감시원은 물고기 떼가 만에 들어왔음을 확인하면 깃발로 그물을 끌어 올리라고 신호를 보내 물고기를 쉽게 포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선에서 돌을 던져 근처의 물고기 떼를 만으로 몰아가도록 신호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 고기잡이법으로 고기를 잡았던 마지막 어업은 2014년에 조업이 정지되었고, 지역에서는 이 어법을 지역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래잡이

현재는 고래잡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에도 시대(1603~1867년)에 후쿠에에서는 고래잡이가 성행하여 섬의 사회적·문화적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명한 우키요에 화가 가쓰시카 호쿠사이(1760~1849)도 ‘천회의 바다’ 시리즈에서 고토의 포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래잡이는 해안 가까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높고 전망이 좋은 장소에 있는 고래잡이 감시원이 고래가 있는 곳을 알아내면 나무로 만든 작은 배를 단체로 보내서 그 뱃사람들이 직접 만든 작살이나 그물을 사용해 고래를 해안까지 끌어들이었습니다. 고래는 그 뒤 거의 모든 부위가 사용되고 가공되었습니다. 지방과 껍질은 귀중한 기름(램프 기름이나 비누로 사용됨)으로, 이빨과 뼈는 빗이나 머리핀 등으로 가공되었습니다. 고래 수염까지도 분라쿠(일본의 전통적인 인형극) 인형을 조종하는 실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래고기는 일반적인 먹거리로서 현재는 지역산은 없지만 지역 특산품으로서는 남아 있습니다. 1899년, 증기선과 작살을 사용한 노르웨이식 상업 포경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고래 포획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개체 수에 대한 국제적인 염려 때문에 1982년에 상업 포경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4 세기에 걸쳐 고래잡이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식료품, 식량, 수입을 제공할 수 있어서 후쿠에의 많은 마을들을 지탱해왔습니다.